

보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오케스텔 4층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刊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04호
T: (02)783-0071~2 F: (02)783-0073

미국·일본 등 해외지역 용마가족들은
배타적인 미국의 환경 속에서도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사진은 95년 8월 주범국 당시 본부회장이
뉴욕지역동창회 동문들과 가진 간담회 광경).

美·日 용마가족 “돕고 뛰자” 역량 결집

최근 미주 및 일본지역에서의 동창회 활동이 왕성한 편이다.
미국 남가주(LA) 북가주 시애틀 등과 일본 도쿄지역동창회의 조직강화 노력
및 용마가족의 유대 증진을 위한 활약상을 지상 중계한다.

해외지역동창회 활동상 연락 바랍니다

을 보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70년 창립된 LA동창회는 28년 세월속에 동문·가족이 엄청나게 불어났다. 초창기 유학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출범했던 것이 미국이민의 본격화로 급성장했다. 그동안 김홍주(7회) 김태준(9회) 신남철(10회) 김창휘(14회) 등이 동창회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월 13일에는 김재정은사의 LA방문 환영행사로 이곳 지명백 캐나다 이성호이사 등을 함께 초청해 잔치를 벌여 즐겁고 호뜻한 시간을 보냈다.

「젊은 동창회」 지향

북가주 미국 북가주(샌프란시스코)지역동창회는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를 다시 원로층으로 거슬러 올라가 구성하는 등

- 남가주** 250명 대가족...골프대회 88차례 치러
- 북가주** 원로층 다시 집행부 맡아 활성화 촉진
- 시애틀** 두달에 한번씩 만나 兄弟愛 나누며 격려

집행부와 이사회로 운영되는 이곳 동창회는 집행부의 경우 한원구(4회) 김홍주(7회)이 고문을 맡고 있다. 또 이사회는 수년전에 회장을 맡아 기반을 다졌던 신남철(10회)이 이사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LA에는 이승자 지명백 은사를 비롯해 최성근(1회), 박영돈(3회) 등 다수의 원로들이 건재,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3

재충전을 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곳 동창회는 최근 조직활동이 다소 소강상태에 빠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임시총회를 개최, 임기 2년의 회장에 고회를 내다보고 있는 金榮夫(3회)를, 부회장에 88년 회장을 역임했던 趙東勳(9회)을 추대했다.
그러나 총무는 본부동창회가 지향

하고 있는 「젊은 동창회」구축에 발맞추기 위해 활동력이 왕성하고 불임성(?)이 좋은 許植暉(30회)을 임명했다. 이같은 전열강화 이후 첫 모임인 여름단합회는 7월 11일 吳昌煥(12회)이 자택으로 용마가족을 초청함으로써 뜻깊게 이뤄졌다.
金희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부부 동반 20여명이 참석, 풍성한 정담과 맛깔스런 저녁식사를 나누었고 노래방 시설이 갖춰진 룸살롱(?)에 자리를 옮겨 한국조식 뽀아 회포를 풀었다.
金희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일모레면 칠십줄에 오르는 이 사람을 영광스런 회장자리에 올려주니 30대 장년이 된 기분」이라며 「무엇보다도 서로 돕고 많이 참석하는 동창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자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가을 체육대회 계획

시애틀 미국 시애틀지역동창회는 동문·가족이 두달에 한번씩 만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다. 책임감과 추진력이 강한 김영국(19회)의 헌신과 용마가족의 적극성이 탄실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
김희장에 따르면 이곳에는 8회 양철환(19회)으로부터 막내인 34회 박근영(27회)에 이르기까지 약 20여명이 정규구입 등으로 만나거나 그럴 시간이 없을 때는 소식을 전하며 생활한다고 한다.

자영업을 통해 생활기반을 잡은 대부분의 동문들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동창사회는 물론 한인사회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개업의 김희장과 중학교 동기생인 백기완(19회)이 유일하며, 이창식(22회) 우봉구(24회) 김의철(27회)은 지사 및 상사에서, 김희장과 박근영(34회)은 BOEING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희장은 「집행부를 맡아 일을 하다보니 뛰니뛰니 해도 결집력 강화와 유대증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여건을 조성해 자녀들까지 모이게 즐기는 체육대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은사 등 환영회

남가주 미국 남가주(LA·로스앤젤레스)지역동창회는 미주는 물론 해외동창회중 가장 조직적이고 화합과 결집력이 강하며 활동력이 왕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2백50여명의 동문은 개업의를 포함해 전문인 지영업 회사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연말의 정기총회를 비롯해 거의 매달 골프 낚시 바둑대회 등을 통해 동문·가족들은 우정을 나누며 조직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용마골프회는 모두 88회 대회를 치렀다. 지난해부터는 부산중고 동문들과 친선대회를 열고 있다. 골프는 매년 5~6차례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집행부를 맡은 명철공회장(17회·내과전문의)은 10여년간 부

회장을 맡아온 열성파로 추진력이 강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동창사회나 지역사회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의료인. 명회장은 기존 각종 행사를 더욱 재미있게, 더 많은 동문·가족들이 참여하도록 헌신하고 있다.
특히 월간으로 배포되는 이곳 동문들의 소식지 「용마」가 우정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데, 명회장 또한 이 일에 무게를 많이 실고 있다. 지난해 이현재회장(15회)이 집행부를 이끌 때 「전 미주 용마주소록」을 발간, 큰 호평을 받았다.
명회장은 「앞으로 LA소식지 「용마」를 확충, 미국 내의 각 지역회의 동문·가족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Newsletter」를 발간, 명실공히 「미주지역동창회지」로 도약시킬 계획」이라며 「전인 집행부가 일귀농은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 결집

가족동반 행사 생활화

주말 골프·오찬회동 잦아

도쿄 일본 도쿄지역동창회는 金光信(16회)·SU-NPACK(주) 대표취체역 전무)을 비롯 40여명의 동문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가족동반 등산과 야유회, 신년회, 골프대회 등으로 결속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동문들은 권역별로 주말 골프나 오찬회동을 갖고 동창사회의 소식들을 교환하는 것이 특색이다.
또 동문과 가족들의 근황을 알리는 소식지도 발간, 배포함으로써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열린 신년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집행부는 金희장과 朴隆彦(17회·제일은행 도쿄지점장), 朴永守(29회·DAIEI SHIPPING(주) 사장), 李相權(35회·국제상사 도쿄지사장) 등이 앞장서 헌신함으로써 활성화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4년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金희장은 「본부동창회 집행부가 해외지역동창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한다」며 「고국의 IMF사태로 현지법인



97년 총회 임명된 시애틀지역동창회 회장 김영국(19회)은 이창식(22회) 우봉구(24회) 김의철(27회)을 지사 및 상사에서, 김희장과 박근영(34회)은 BOEING에서 근무하고 있다.

축소 등으로 동문들이 더러 귀국하는 바람에 회원이 많이 줄었으나 유대강화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朴간사장은 「본부의 동창회보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영진을 거듭하는 동문과 도쿄의 청룡기야구 우승 등

기쁜 소식을 접할 때마다 힘이 솟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쿄지역동창회는 동문발굴에 노력하는 한편 오사카 등 다른 지역과도 연락을 자주하고 상호방문 및 스포츠 교류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BIO BALANCE Alzner

가라, 발로 인한 통증 알즈너가 해결한다

알즈너-Orthotics의 적응증

- 척추골반**
 - 요통 좌골신경통 • 척추전만증 척추탈골증
- 발목 발**
 - 안짱다리 • 발목이 밖으로 구부러진 현상
 - 엄지발가락 관절의 돌출현상 • 평발
- 무릎**
 - 무릎관절통증 • 인대손상
 - 무릎뼈의 돌아간 증상
- 목 허리**
 - 요통 • 허리디스크 • 목디스크

(부산총판)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O/T 401호
경고 21회동기회 사무실

대표 강수경(21회)
이용수(부산고 20회)

TEL : 245-4165/6 FAX : 245-4167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인체공학 중심의 첨단 메카니즘으로 탄생시킨 알즈너..... (교정구)

옆의 사진은 뛰어난 알즈너의 효과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쪽 사진은 알즈너를 사용하기 전의 것입니다. 양 발바닥의 안쪽이 심하게 구부러져 있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래쪽 사진은 알즈너를 착용한 후 2개월 후에 찍어 본 것입니다. 심하게 휘어졌던 엄지발가락 부분과 발바닥이 거의 정상적으로 교정되었습니다.



“모교는 여전히 「名門」을 지키고 있다”

역사가 깊은 풀든, 전통이 깊은 알뜰간에 어느 동문치고 자신의 모교가 「명문(名門)」이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또 「1류」로 평가받아 선망의 대상이 되려고 하지 않겠는가? 학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동문교사를 비롯해 모든 교직원들은 이 두가지를 지향한 나머지 피를 말리는 책임감으로 교단을 지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기회에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인식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고교교육의 평준화정책 이후 그렇게 「1류」를 자처하던 고교들은 특정 유명대학에 진학시킨 숫자를 가지고 학교의 우열을 논할 수 없고, 4년제 대학에 몇 명을 합격시켰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라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과거 고교선발 입시제도일 때 명성을 높이던 고교들도 지금은 서울대 합격 숫자만 바라볼 수 없고, 반면 4년제 대학의 합격률 향상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도 모교는 아직도 서울대를 비롯해 4년제 대학의 학적률이 으뜸의 자리에 있고, 여전히 「명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군이 좋다고 하는 지역의 학교가 두각을 반드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더욱더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날 부산의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자식의 「경남고 입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교사는 교사대로 여전히 「경남고 근무」를 최상의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 제35차 본부동창회 정기총회는 모교 교장인 나를 만감이 교차하게 했다. 서울에서 모처럼 참석했다고 하는 어느 동문이 동창회 운영에 관한 발언중 『오랜만에 부

산에 와보니 경남고는 3류로 되어 있는데...』라고 했다.

나는 그때 「오늘의 모교가 3류라나...」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가운데 경멸당한 당혹감으로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했다.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의 얼굴이 머리속을 스쳐 갔고, 「동창생끼리니까...」하면서 애써 표현의 잘못이려니 하고 잊으려 해도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7월 13일자 재경 소식지 「龍馬」 14호 2면 (시평)에서 『...과거 1류고 가운데 바뀐 제도의 불이익을 교육환경의 변화로 극복한 학교는 옛 영광을 되찾고 있는 반면 변신하지 못한 채 대책임이 흘러온 학교들은 어김없이 2~3류로 침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침몰한 대표적인 학교가 경남고등학교다.』라고 표현하면서 글을 이어가고 있다.

졸업생들이 모교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서로의 공과(功過)를 논하는 것은 그들의 견해요 의사이겠지만, 오늘날에 현존하는 모교를 어떤 논거에서 「3류로 침몰한 대표적인 학교」로 못박는단 말인가?

21세기의 역군을 지향하면서 긍지와 희망을 소중히 간직하고 면학에 열중하는 1천8백여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 및 가족들, 그리고

시평

金鳳吉

제8회 경남고 교장



일생의 교직생활중에서 경남고에 근무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 1백여 교직원들- 그네들의 인격과 삶을 강그리 무시한 채 일방적인 생각으로 한 말과 글들이 아닌가?

모교 경남고가 50여년 역사를 통해 그 명성과 전통을 자랑하게 된 것은 전국의 어느 학교보다 동창회 활동이 활발했고 동문들이 모교와 후배를 성원해 주었기 때문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서울에서 전국야구대회가 1년에 두 차례씩 있을 때마다 재경동문들의 그 뜨거운 함성, 앞다투어 주머니를 털어 선수를 격려하고 성원해주는 그 고마운 정성 등등을 생각하면 눈물겨운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 재경의 동문이 어떤 연유로 모교의 자존심을 이토록 무참하게 하는 지 참으로 유감스럽다. 시련과 영광이 교직된 과거의 경남고도 자랑스럽지만 오늘의 경남고는 엄연히 생존하는 실체이며, 내일로 이어지는 경남고는 더욱 중요하다.

모교에 대한 항수와 애정으로 동문끼리 부담없이 주고 받는 말일지라도 공식석상에서 하는 발언과, 특히 강행물에 활자화하여 세상에 내놓는 글을 다룰 때, 필자나 편집책임자

는 내용의 과급범위와 관련자들에 미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견 그것은 글을 쓴 동문과 전화통화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지만 무거운 마음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고교평준화정책 이후 배정받은 학생들로 경남고 전통의 계승을 위하여 애쓰신 훌륭한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도 여러분 계셨다. 그중에는 우리들의 은사도 계시고, 특히 동문으로 우명수(5회) 이희문(6회) 교장선생님은 4년 이상 봉직하면서 동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애쓰시고 더 어려운 일을 내색하지 않으셨다. 시설 분야며 교육내용에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는 전임 교장선생님들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으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고 있다. 지난해의 대학입학 성적도 종적으로는 당연히 앞서 있다. 명문대학에 진학한 숫자는 평준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어느해에도 뒤지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육의 덕목도 분명히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배정받은 학생들도 소중한 경남고 학생이다. 이 학생들을 개성과 소질에 맞추어 앞서가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창의적이며, 자율적이고 봉사적인 인간으로 키워가는 것이 오늘 교육현장의 중요한 내용이다.

오늘의 경남고 입장이 이러한 데 문제는 향후에도 어떤 발상에서든지 경남고 명예와 기운(氣運)을 가뭇게는 언행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文正秀(12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文正秀(12회·전 부산시장)은 7월 8일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98년도 제2차 총회에서 조직위원장에 선임됐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 수준에 이르게 하고 국민통합 기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할 것』을 위원장은 취임소감으로 밝혔다. 올해부터는 민간 자율로 운영되도록 정권을 바꾼 만큼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배움을 수



없는 임무라고 말한 文 위원장은 『앞으로는 영화제의 순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케팅과 관광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 측면을 장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과 민정당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文동문은 95년 민선1대 부산시장에 취임한 이래 3년간 교통난 등 부산의 심각한 현안들을 풀어내는 데 역량을 발휘했다.

李學允은사 제자 축복속 정년퇴임식



모교에서 70년 3월부터 76년 2월까지 봉직했던 李學允은사가 이달 27일 부산 중앙여고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 40여년간 헌신한 교육계를 떠나게 됐다. 모교에서 6년간 국어를 가르쳤던 李은사는 지금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동문들을 제자로 거느리고 있다.

엄한호(11회) 부산병무청장 발탁



엄한호동문(11회)은 인천·경기 지방병무청장 재임중 7월 1일 부산병무청장에 취임, 금의환향했다. 부산대 법대 출신인 엄동문은 부산청 징병관과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등을 거쳐 병무청 총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책임감이 투철한 엄동문은 95년 9월 고운문화상(정의부문)을 수상.

김광일(12회) 변호사 업무 재개



金光一 동문(12회·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법무법인 「충정」을 발족시키고 변호사 업무를 재개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15회)에 합격한 김동문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 법관 및 변호사로 28년간 법조계에서 헌신했다. 제13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동문은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정치특보 등을 역임했다.

이상택(13회) 효산의료재단 이사장



이상택동문(13회·본부 부회장)은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을 설립, 이사장에 취임했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후 72년 안양에서 안양병원을 개설, 26년간 병원장으로 헌신해온 이동문은 이번에 부인 황영희씨에게 병원장직을 맡겼다. 이로써 안양병원은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안양병원으로 개칭됐다. 지역사회 의 의료 및 보건을 위해 애써온 이동문은 최신 장비와 완벽한 의료시스템을 갖춰 더욱 봉사하게 된다.

許동문의 장군진급을 축하하는 동교회 모임을 주재했다.

박광웅(15회) 파주경찰서장 영전



박광웅동문(15회)은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장 재임중 파주경찰서장으로 발탁됐다. 박동문은 경희대 법정대를 졸업한 후 경찰에 들어와 경무 수사 보안 방법 경비 등 전 분야를 순환근무한 탓으로 경찰행정에 밝다. 부하를 아끼고 하의살당을 중요시함으로써 신임이 두텁다.

권봉헌(12회) 서울고검 사무국장



권봉헌동문(12회)은 대전고검 사무국장 재임중 7월 1일 서울고검사무국장으로 영전했다. 법무부에서 수사 및 검찰사무 분야를 익힌 권동문은 대검 및 서울지검 특수부 수사관,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서울지검 특수부 수사1과장, 청주·수원·서울지검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반태호(14회) 부산고검 사무국장



반태호동문(14회)은 서울지검 사무국장 재임중 7월 1일 이사관 승진과 함께 부산고검 사무국장으로 영전했다.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반동문은 지검과 법무부 등에서 수사관 과장을 역임했다. 업무처리가 치밀한 반동문은 동문들의 민원, 생활법률상담을 기꺼이 돌봐주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다.

朴興祚(22회) 울산지역 사무국장에



울산지역동창회 신입 사무국장에 朴興祚동문(22회)이 임명됐다. 울산도박이 「마당발」 박동문은 대구은행에서 차장까지 지내다 기업인 삼우교통과 삼우기공 사장담을 맡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고, 조직활성화 운동이 찬양인 울산동창회 야전사령관이 됐다. 김익도 국장(12회) 후임인 박동문은 각급교 동창회 항우회 시민단체 등에서 총무나 임원을 너무 많이 맡아본 경험자라 울산동창회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許演旭(23회) 육군준장 진급 동기회 축하회 개최



許演旭동문(23회)은 7월 1일 육군준장으로 진급, 〇군 인사처장으로 보임됐다. 육사29기인 許동문은 전후방 각 부대에서 대대장 연대장 등 주요 지휘관과 참모직을 거쳐 육본 인사운영감실 과장 및 국방부 인력과장 등을 역임했다. 고려대 대학원을 졸업(경영학 석사)한 許동문은 외유내강형으로 군의 인력 및 인사관리 분야의 베테랑이다. 한편 朴基旭동기회장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서면 삼오정에서

강근택(18회)駐우크라이나 대사



강근택동문(18회)은 외교통산부 외교정책실 부실장 재임중 최근 주우크라이나 대사로 임명되었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외무고시(5회)에 합격한 강동문은 주체네바 주우간다 주영국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활약했다. 본부에서는 안보과장과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 부산시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역임했다.

신부 崔敬容(21회) 「레지오 마리에 영성」 출판기념회 가져



울산 성바로 천주교회 주임신부인 崔敬容동문(21회·베드로)이 7월 5일 오후 3시 이 교회에서 「레지오 마리에 영성」출판기념회를 열었다. 崔동문은 광주 카톨릭대 및 대학원을 졸업한 후 76년 부산교구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서면 송도 양정본당과 교구청 등에서 사목으로 헌신했다. 이후 이탈리아 포클라레 영성사

제학교, 교황청립 로마 테레시아눔 대학원에서 「레지오 마리에 영성」 논문으로 영성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천주교회와 뉴저지 뉴브런스워크 한인천주교회에서 초대 주임과 북미주 한인 레지오 마리에 교육담당 신부로 활약했다. 현재 부산교구 레지오 영적 지도신부인 崔동문은 「레지오 마리에 교보 해설」등 저서와 「침묵속의 만남」(칼 라너 지음) 등 역서 다수가 있다.

신후배간 신뢰가 두텁고 기획조직력이 뛰어나며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 지인이 많다. 한나라당 울산 남-갑지구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동문은 87년 대선 때 대구에서 고군분투했다. 판사 사위에 외손자까지 둔 「젊은 할아버지」로도 불리고 있다.

천태산 골짜기 교가 울려 퍼져

제8회동기회 永同 영국사 절골서 98년 京釜 합동야유회

제8회동기회 부산·서울 용마가족 단합대회가 5월 10일 충북 영동 근교 천태산 영국사(寧國寺) 절골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에서는 이창규회장(화재보험협회 이사장) 등 35명이, 부산에서는 박동렬회장(해운대성심병원장) 등 39명이 영국사에 모여들었고 산행을 즐겼다.

74명의 용마가족은 용반가든에서 우정을 다지는 회식을 가졌다. 서울과 부산의 회장이 차례로 인사말을 하고 축배를 들었다.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벼슬도 벗어놓고 사랑도 마다하고 불원천리 달려왔다. 서로의 술잔속에 녹은 정담은 꿀맛보다도 더 달았다.

부산의 박회장은 소담한 우정을 더욱 귀중하게 간직하기 위해 내년 5월경 가족동반 일본여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여흥이 무르익었다. 부인들이 합창경연을 벌였다. 서울팀은 「교가」를, 부산팀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불러 귀관을 신나게 했다.

그러나 갈 길이 바빴다. 오후 3시경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부슬비를 맞으며 기념촬영을 했다. 이내 『잘가거라!』 『오냐, 너들도... 건강해라!』 손을 흔들며 아쉬움을 내뼠다.

**귀가길 서울팀
「달리는 살롱」 운영**

한편 서울팀(강성태 김한진 박기

홍 박우상 박지병 배주원 윤태영 이유훈 이창규 이창근 이현문 이희순 전영배 조석제 조운제 최재혁 홍기성 동문 내외와 추경석 동문 등 모두 35명은 귀경 차중 「달리는 살롱」에서 노래자랑을 벌였다.

특별사회를 맡아 인기를 끈 김정화 씨(이창근 부회장 부인)가 마이크값을 인정사정 없이 거둔 바람에 금상첨화(錦上添花)격으로 저녁식사를 기분 좋게 했다.

이날 회장단은 몸이 불편한 데도 동참해준 최재혁 조석제 동문의 부인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서울서 출발할 때 지각하는 바람에 차를 놓친 박성재동문에게 『미안, 미안!』 콧배기로 사과했다.



▲변슬도 벗어놓고 사랑도 마다하고 친구찾아 왔던 제8회 서울·부산 용마가족들이 충북 영동 근교 천태산 영국사 절골에서 98년 京釜 합동야유회를 하고 있다.

본부동창회 명예부회장(국회의원) 선임

- ▲나오연(6회·한나라당)
- ▲손세일(8회·국민회의)
- ▲박희태(11회·한나라당)
- ▲유홍수(11회·한나라당)
- ▲김기춘(12회·한나라당)
- ▲차수명(12회·한나라당)
- ▲정문화(13회·한나라당)
- ▲한이현(16회·국민신당)
- ▲정형근(17회·한나라당)
- ▲권철현(19회·한나라당)
- ▲김형오(20회·한나라당)
- ▲노기태(20회·한나라당)
- ▲김무성(24회·한나라당)
- ▲박종용(25회·한나라당)

무적함대 제24회 또 우승 대회 통산 10관왕 "위업"

재경주최 제30회 기별야구대회... 준우승 31회 차지

제24회동기회가 기별야구대회 30년 전통에서 대회 통산 10관왕의 경이적 영광을 거양했다. 제24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 도농 상업은행 야구장에서 열린 재경주최 기별야구 서울대회 결승전에서 다크호스 제31회와 격전을 벌인 끝에 12대 9(헨디 3점 포함)로 승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배산갑과 우승기를 품에 안은 제24회는 열광적 축하속에 물뿜었다. 특히 응원에 열중했던 가족들이 환호와 함께 더 기뻐했다.

安又萬재경회장(10회·전 법무부장관)은 폐회사를 통해 『30년 동안 변함없이 이 대회를 치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그동안 열심히 뛰 선수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폐회식은 이어 윤승홍 운영위원장(14회) 박영무 포상위원장(15회) 최광수 심판위원장(20회) 등의 노고를 박수로 치하하고 교가제창과 만세삼창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6월 21일 열린 재경 제3회 한미당잔치에서 제15회(왼쪽)와 제17회가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제17회가 우승했다.

“신바람” 제경 한미당잔치

홀라후프 장년부 1등 장승봉(10회) 부인 노래자랑 용마상 안동렬(21회) 부인 수상

재경동창회 제3회 한미당잔치가 기별야구 서울대회 결승전이 끝난 6월 21일 오후 2시 도농 상업은행 야구장에서 펼쳐졌다.

제1~21회까지 3백여명의 동문·가족들은 십시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도 응원과 장기자랑으로 신바람의 하루를 즐겼다. 부문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홀라후프 돌리기=장년부 1등 장승봉동문(10회) 부인·소년부 1등

김기현동문(9회) 자부·청년부 1등 정병섭동문(9회) 자부

▲제기차기=1등 정인규(12회)·2등 홍순길(21회)·3등 허광길(15회)

▲줄다리기=우승 제17회·준우승 제15회

▲노래자랑=금상 윤재복동문(10회) 부인·대상 박명복동문(11회) 부인·용마상(부상 29인치 TV수상기) 안동렬동문(21회) 부인

▲응원상=제10, 16, 17회동문 부인

새 체육대회 우승기 전달 거제 신임회장 조규태(14회)

거제지역동창회 98년 정기총회가 5월 27일 오후 7시 거제 프라자관광호텔 「해금강홀」에서 동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신임회장에 조규태동문(14회·거제중 교장·사진)을 선출했다.

김장욱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회장인사에 이어 동문소개, 본부동창회 창 격려금 전달, 김기춘 본부회회장(12회·국회의원) 추사, 결산보고와 예산안 승인, 임원개선,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 엄수훈 총무·25회).

조 신임회장은 김 직전회장으로부터 꽃다발과 새로 제작된 통합체육대회용 우승기를 받은 후 인사말을 통해 『선배님들의 지도와 후배 여러분

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의 지역동창회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환 고문(4회)의 축배제의로 만찬을 가졌다. 이날 새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조규태

▲부회장=윤용남(14회·거제교육청 장학사) 서수홍(18회·수라정빚밭 대표) 최영호(27회·대우 부장) 심달진(27회·삼성 차장)

▲감사=신현정(19회·고현유로주 차장 대표) 박종기(28회·대우 차장·유입)

▲총무=배종현(33회·거제중 교사).

바로 잡습니다

회보 300호(98.6.30) 5면 본부동창회 제25대 이사회 이사명단 중 노수덕(14회) 금양 회장 직책이 금양 온산공장 전무이사로 잘못 기재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경문회 정기총회

정소영 본부회장 격려금



경문회(부산 교직원 동문 모임)는 6월 23일 오후 6시30분 부산 연제구 연산동 국제신문사 24층 「크리스탈뷔페」에서 98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金宣東(10회·남부교육청 교육장·사진)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에는 禹明洙 陳道榮(이상 5회) 許光洙 李熙文(이상 6회) 고문, 鄭昭永(6회) 본부회장, 梁鍾學(4회) 鄭兄錫(6회) 특별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許光洙(6회)고문은 교육위원(서구 영도구 중구 남구지역)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특히 본부회장과 元東喜동문(24회·동남개발 대표) 등이 경문회의 발전을 위해 협찬을 아끼지 않았다.

제7회 임원 개선 신임회장 윤진현



제7회동기회 98년 정기총회가 5월 20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전오피스텔 「선뷔페」에서 열려 尹晉憲동문(전 동아대 교수·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趙大濟회장(협성개발 대표)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50여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 ▲고 문=趙大濟
- ▲회 장=尹晉憲
- ▲부회장=金成樂 楊鍾院 尹洸善 尹治宇
- ▲감 사=姜錫求 金德馨
- ▲총 무=金思遠.

제19회 바둑대회 우승 정흥주 정학영 백흥기

제19회동기회는 6월 28일 오전 10시 중구 중앙동 2가 21 동기회사 무실에서 친선바둑대회를 개최, 鄭興

제12회 지역 월례회

제12회 동기회(회장 趙哲元)지역별 여름철 월례회가 다음과 같이 열려 홈키링데이행사에 워킹 뷔페 등을 나누었다.

- ▲남·수영·해운대·기장(회장 權延相)=7월 20일 대연동 「평원한식」
- ▲사상·사하·강서(회장 南基鎔)=

7월 16일 하단동 「일봉일식」

- ▲대구·경북(회장 金鍾源)=7월 9일 대구 범어동 그랜드호텔 연회실
- ▲울산(회장 李在寅)=7월 9일 울산 달동 「이동술밭갈비」
- ▲중·서·영도(회장 金準鐵)=6월 19일 중앙동 「화춘」
- ▲동·부산진·연제(회장 張東錫)=5월 28일 연산동 「해암뷔페」.

승정 여름캠프 오픈

제16회 동기회 컴퓨터시스템 구축

제16회 동기회(회장 박민소)는 최근 동기회 단위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컴퓨터시스템을 구축, 인터넷 접속까지 완료했다.

회원 명단 관리에 착수한 동기회는 인터넷 검색을 비롯해 각종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동문에게 언제나 개방하고 있다.

한편 동기회는 8월 1~2일 1박2일 일정으로 승정 단골민박집에서 「98승정여름 캠프」를 열었다.

올해는 IMF한파 때문에 일정을 주말과 휴일로 잡았다. 개소식은 1일 오후 2시에 거행됐다.



珠 鄭鶴永 白弘基동문이 각각 조별우승을 차지했다.

박동하부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는 30여명의 동기생이 참석한 가운데 A(1~2급) B(3~5급) C(6급 이하)조로 나뉘어 오랜만에 수담을 나누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점심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 A조-우승 鄭鶴永·준우승 姜鍾仁·3등 孫永昉
- B조-우승 鄭鶴永·준우승 金龍燁·3등 金亨洛
- C조-우승 白弘基·준우승 金光旭·3등 朴成圭.

제33회 정기총회 유입



제33회동기회는 6월 18일 오후 7시 본부회관(부산 부평동 골든오피스텔 411호) 14층 「골든뷔페」에서 98년 정기총회를 열고 尹聖國회장(대용관광 대표·사진)을 유입시켰다. 尹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사회 朱基勳 총무).

▲제33회동기회 임원 개선을 위해 98년 정기총회가 열렸다.

용건회 집행부 재신임 박봉흠(11회) 회장 유임



부산지역 건설분야 동문모임인 용건회는 4월 21일 저녁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크라운호텔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동문 60여명이 참석했다.

朴奉欽회장(11회·사진)이 주재한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 승인에 이어 임원개선을 통해 朴회장을 비롯해 임원 모두를 유임시켰다.

특히 이날 모임에 文正秀 부산시장(12회)이 참석, 격려사를 했다.

동문들은 2부 연회를 통해 소주잔을 나누며 그간의 근황과 정보를 교환하는 등 회포를 풀었다.

- ▲고 문=윤진석(1회) 윤진한(9회) 유홍수(11회) 정문화(13회)
- ▲회 장=박봉흠(11회)
- ▲감 사=이석림(12회) 박문규(16회)

▲부회장=장상진(16회·수석) 류종우(18회·총무담당) 이용홍(19회·기획담당) 오윤안(23회·사업담당) 조종진(25회·재무담당)

▲이 사=안재상(20회·총무담당) 원동희(24회·재무담당) 이영학(26회·기획담당) 이철학(26회·사업담당)

▲총 무=김정규(29회·회무담당) 이광희(30회·회무담당) 배휘영(34회·회계담당)

권철신(17회) 훌륭한 교육자상 수상



권철신동문(17회·성균관대 산업공학과 교수)은 5월 15일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의 「훌륭한 교육자상」을 수상했다.

지난 12년간 대학원 연구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해결하는 등 학문연구 몰두에 열성적인 권동문은 개발공학의 첨단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로 손꼽히고 있다.

재경21회 회장 김인묵



제21회재경동기회는 5월 19일 오후 7시 무역센터 「바이킹 식당」에서 98년 임시총회를 열고 김인묵 동문(고려대 물리학과 교수·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는 이어 감사에 이장춘, 총무에 홍순길동문을 선임했고 부회장 구성은 김신임회장에 위임했다.

본부 총무단 금정산서 단합대회

는 밑알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부동창회 총무단 친선 산행대회경 단합회가 7월 12일 금정산에서 열려 우의증진을 결의했다. 사진은 산행후 단합회 광경.

정소영회장 격려금 전달

본부동창회 총무단협의회(경총회)는 7월 12일 금정산에서 조직 결성 후 처음으로 등산겸 단합대회를 열고 결속을 과시했다.

김수현 경총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초청받은 본부측 정소영 회장(6회) 최득호 사무국장(11회) 김병수 총무(22회)를 비롯해 40여명이 참석했다.

2시간 이상 산을 오른 일행은 오후 1시 단합회 장소인 「금정산장」에서 회식과 노래경연으로 즐거움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본부회장과 제16회동기회는 경총회에 각각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편 옥윤석간사장(16회)등 20여명의 1진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지하철 온천장역에서 출발, 식물원 뒤편 가파른 계곡을 타고 휴정암까지 올라가 남문을 거쳐 단합회 장소에 집결했다.

이들은 산성마을행 버스편으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이몽주 총무(4회) 김수현 경총회장(5회) 정소영 본부회장 최병수 총무(이상 6회)등 2진 20여명과 합류했다.

2부 단합회에서 정 본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경총회의 오늘 등

산대회가 앞으로 본부주최 가족동만 기별등산대회를 개최할 수 있



조랑말 타고 "내 품 어때" ... 넉넉한 인심에 취하고

4월 18일 오후. 비행기는 눈 깜박할 사이에 예로부터 삼무(三無=거지 도둑 대문 없음) 삼다(三多=바람 돌 여자 많음) 삼려(三麗=인심 좋고 자연 아름다움) 과 실 맛이 좋음)로 이름난 제주도에 내렸다.

학생들(?)은 역시 시끄러웠다. 저마다 조랑말은 바람에 한번 집합시키려면 목청이 몇번이고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옥윤석 반장은 견뎌야 했다. 신제주의 라자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서울의 배성호 서정식 송태남 이무송 이철웅 주낙곤 천 경 등 7명이 먼저 와 있었다.

여기에서 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반갑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기 때문.

우리 동기회의 열 다섯번째 「수학여행」 첫날이었다.

조금 전 대한항공 KE1013편 기내 깊숙이 파묻혀 숨죽이고 있던 朴敏昭회장 玉潤錫국장 필자 등 부산 촌놈(?) 34명, 마산의 최현우, 함양의 하주열 등이 제주도 땅을 밟자마자 기가 펄펄 되살아났다.

대망의 전야제가 열리는 「미도원」에 다 모였다. 광어회로부터 서너가지 회와 소라 명게 해삼 등이 상을 거둬서 채웠다. 또 조잘댔다.

웬만해서는 잠소리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지 옥국장이 「이 짜석들아 조당이들 좀 마카라! 언제 이 많은 회랑 다 묵을래...」하



<제16회 제주 수학여행기> 강종국

비자림 일싸인과 「헛된 욕망」 기원 내년에는 대마도 정벌(?) 나서기로

고 버럭 일갈하자 입들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朴회장이 지천명(知天命)을 화두로 올려 인사말을 했다. 많이 참석해 줘서 고맙다고 한 후 건강을 잘 지키며 인생을 즐기도록 하자는 말로 끝냈다.

하주열이 함양에서 들고온 지리산 국화주 20병이 금새 비워졌다. 모두들 술을 겁내거나 아끼지 않았다. 서울의 주낙곤은 이곳 근무 시절 알게 모르게 날렸던(?) 탁인 지 어느 정불인 사내의 집에 빠졌다가 돌아와선 자랑을 쏟아냈다.

뒷날 아침은 몇몇을 빼고는 늦잠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기상이 고르지 않았다. 한라산 백록담 계획은 꿈결 속으로 사라졌다.

아쉬움을 안고 성산 일출봉이라도 올라야 했다. 부시시한 표정들 일망정 기념사진은 찍어두려고 부지런했다.

찰칵! 찰칵! 셔트소리가 어찌면 그렇게 파도소리를 콘택트하는 것일까. 모두들 조랑말을 타고 달리기를 겨뤘다. 귀여운 모습들이었다.

성읍 민속마을에 닿았다. 이장의 딸(조근년·막내)이 제법 웃기

면서 안내했다. 토속주의 시원 짙 짙한 맛에 술꾼들이 설쳤다. 오미자차와 토종꿀을 어찌 그리 많이 사는지... 토종꿀이라 하지만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비자림에서는 마산의 최현우와 서울의 이무송, 부산의 박회장이 제일 큰나무를 세 바퀴나 돌면서 「고스톱때 돈 많이 따게 해주이소」 하며 「천진난만한 허욕」을 부려 귀여움(?)을 받았다.

동북리 과부촌 앞 해변에서의 해삼 명게 소주의 삼위일체파티는 또다른 행복감을 느끼게 했다. 돈 많은 작자들의 거드름피는 요정놀이보다 몇배나 높은 진솔한 삶의 가치였다.

명도암의 풍광을 가슴 깊이 새겼고 휴양목장에 들러 잔디밭에서 씨도 안박힌 개뿔철학(?)들을 털어놓으며 동심을 배웠다. 저 푸른 하늘, 뜬구름, 새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나무들 물오르는 소리... 자연의 생명력에 경외로움을 느꼈다. 추억의 렌즈에 영원히 담길 순간들이었다. 내년에는 대마도 정벌(?)을 추억에 남기로 했다.

이번 여행은 (주)코리아관광 사장 신태규동문이 숙박과 교통편을 치밀하게 구성했기에 즐거웠고, 옥국장이 가는 데마다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일일이 챙기는 바람에 별탈이 없었다. 비디오촬영은 김영부(부산대 의대 교수), 사진촬영은 이상대(신세기금고 감사)가 수고했다.

◆ 모교 청룡기교교우 우수 축하

제16회 동기기회 임원 명단

고 문 車相榮 文秀信 邊龍現 鄭太和 宋圭政 曹吉宇 金 操 梁聖昺 玉潤錫 趙勝男 姜東官	金政鎬 辛泰圭 鄭成基 玉茂雄 李武根 張相進 韓利憲 權福述	부 회장 姜鍾國 金政均 梁和胤 李雨宰 河朱烈	본부이사 金讚汶 文亨植 辛平洋 李相大 李鍾喆	林勝彦(진주) 이 사 姜元昺 金光勇 金德讚 金茂光 金英夫 金正直 朴相範 朴鏞吉 嚴鍾員	尹永植 李吉弘 李孟立 李採彦 洪正吉	박종영 박 훈 배정일 배정희 성기식 이무송 이영재 이효일 전정측 최윤철 허승효 홍용찬	박수면 김민국	회 장 노정현	부 회장 강영주 안인환 권의강 설희순 김취부	조원제 이광명 김두환	감 사 허종욱 김태일	총 무 서정식 신은조
---	--	--	--	--	---------------------------------	--	------------	-------------------	--	-------------------	--------------------------	--------------------------

◆ 동문 여러분! 우리 모두 화합하여 옛날의 영광스런 동창회로 거듭 납시다.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올라 활짝 웃으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돌돌산우회 회원들.

돌돌산우회 홈커밍기념 지리산 등반 천왕봉서 "화합" 기원

제22회동기회 돌돌산우회(회장 張永根)는 6월 6~7일 1박2일 일정으로 졸업 30주년 홈커밍데이 기념 지리산등반대회를 가졌다.

曹勝一 등반대장이 리드한 이번 산행에는 20명이 참석했다. 6일 오후 7시경 중산리를 출발한 일행은 밤 10시경 로터리산장에 도착, 1박했다. 뒷날 오전 4시경 천왕봉을 정복하고 장터목산장을 거쳐 낮 12시경 하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산행은 날씨가 나빠 천왕봉의 일출은 보지 못했으나 새벽 안개속에 펼쳐진 계곡물 고사목의 비경은 장관이었으며 범천계곡의 옥수는 세파에 찌든 심신을 씻어주기에 충분했다. 귀가길 중산리 막걸리 맛 또한 '산으로 오게 하는 유혹'이었다.

가을에 대동제

제26회동기회 클럽별 활동 양성

화합과 결속력이 강한 제26회동기회(회장 朴世賢·대성조경 사장)는 본부동창회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상반기중에 취미그룹별 활동을 열심히 펼쳤다. 특히 박희장은 본부분담금 4백만원의 제외한 기금 3천5백만원의 은행예탁, 가을철 대동제 개최 등 주요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그룹별 상반기 행사는 다음과 같다.

▲26골(골프회)=7월 15일 동부산CC에서 올해 5차 대회를 개최. 우승 김광대(87타)·준우승 최윤립(88타)·메달리스트 김두천(85타)

▲26기(기우회)=7월 11일 서면태양기원에서 월례회 개최. 하반기 행사로 8월 8~9일 특별합숙대국(콘도나 빌라 입차), 11월 재경 용마바둑대회 단체전 참가, 12월 연말 회장배대회 등을 준비중.

▲26테(테니스)=7월 4일 월례대회 개최. 우승 이종인 정대근·준우승

김상현 이규용.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5시 다대공단 대성산업사 코트에서 친선경기.

▲26악(산악회)=6월 20~21일 1박2일 일정으로 내원사 참배. 전야제는 펼 펼 뛰는 아나고 슛볼구이와 소주파티. 설광용동문의 감미로운 바이올린 연주가 곁들여져 술맛 최고!

제25회 새 집행부 구성 신임회장 김규진

제25회동기회는 6월 12일 오후 7시 동구 초량동 「낙지집」에서 98년 정기총회를 열고 金圭珍동문(우주전자 대표·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趙鍾珍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25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집행시 적자인 경우 이를 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등 안건을 의결하고 예결산을 승인한 후 임원을 선출했다.

▲회 장=金圭珍 ▲부회장=金吉守 金銅巖 金鍾滿 金俊鎬 成昊出 李大羽 李明哲 李正仲 李漢植 林相澤 鄭吉榮 계영성

▲감 사=金相守 ▲총 무=文錫球 한편 金회장은 7월 15일 오후 6시 30분 부산호텔 영빈관에서 7월 월례회를 주재, 연회비를 결정하고 동기회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33회 임원 개신 손학근 회장 선임

제33회재경동기회는 98년 정기총회가 5월 13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홍부옥」에서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손학근동문

미국생활 30년... 버뮤다섬의 추억

조 동 준

제11회 LA거주·산부인과 전문의

미국생활 만30년. 올 여름에 미주동창회 총회가 크루즈(cruise)로 여행을 하면서 버뮤다섬에서 열릴 예정이란다. 25년 전 여름, 그 섬에서 3박4일의 짧은 휴가를 보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되살려진다.

그때의 버뮤다 섬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놓는다. 나는 당시 미국에 온 후 인턴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6년 세월을 하루같이 격일로 하는 병원 당직제도에 묶여 있었다. 별보고 집을 나와 별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수련기간도 끝났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해방감을 만끽하기 위해 버뮤다섬 여행길에 올랐다. 네 살짜리 딸과 아내, 세식구가 비행기에 몸을 실

핀 환경에 긴장이 풀리지 않아 휴가 기분에 젖어들 수가 없었다. 떠나는 병원에 남겨둔 환자들의 얼굴도 눈에 삼삼거리고, 「비싼 여행날짜」만 까먹고 있다는 등 잡념으로 초조했다. 술에 의지해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섬의 날씨는 유난히 맑았고 기분도 다소 안정을 찾았다. 「버뮤다 바지」로 알려져 있는 짧은 바지를 하나 사 입었는데, 페리를 타고 해밀턴시내로 관광과 쇼핑을

날 낮 12시 정각. 혼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모터사이클을 빌려 해변을 따라 새벽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달렸다. 평생 타 본 일없는 모터사이클이니 꽤 위험할 법도 했겠지만 그런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무작정 용맹스럽게 섬 일주를 끝냈다.

호텔로 돌아와서 간단히 아침을 챙기고 전날 예약해 두었던 골프를 치러 급히 필드로 나갔다. 그날 9홀인가 18홀인가 쳤다. 호텔로 돌아오니 아내는 떠날 짐을 꾸리며 출발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호텔방 앞에 펼쳐져 있는 파란 수영장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용감하게 뛰어들어 수영장을 몇 번 잼싸게 왕복했다. 이날

고된 수련생활 끝내자 아내·딸 데리고 "脫도시"

휴가 마지막 날 새벽부터 「도깨비 휴가 작전」 전개

모터사이클로 해변 일주 골프치고 풀장서 수영까지



▲그때 그 추억...1973년 버뮤다섬의 해변에서 필자가 네살짜리 딸을 안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었다. 그때는 크루즈가 아니고 뉴욕 해변에서 동쪽으로 6백마일 가량 떨어진 대서양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인 버뮤다로 가는 데 2시간 가량 날아갔던 것 같다. 출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한 기후와 새까맣게 바다 밑에 깔려있는 큰 해삼들이 눈에 잡힐 듯이 맑게 들여다 보이는 바닷길, 하와이섬 같은 인상을 주기는 하나 이곳은 영국 문화권에 들어있는 보수적인 분위기의 관광지였다.

아내 하미까지 조달하면서 수련을 막 끝낸 가난한 젊은 의사에게는 좀 과분한 휴가지였다. 버뮤다에 도착한 후 이틀간은 갑자기 바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보수적인 영국풍의 문화로 채색된 섬도시는 온통 꽃에 쌓여 있었다.

간신히 긴장이 풀리고 휴가를 즐기려는 분위기가 잡혔을 때는 짧은 휴가가 끝날 시간. 휴가를 좀 연장해 보려고 했으나 가난한 수련의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지금같이 편리한 신용카드제도 없었던 때이다.

아쉬움을 남기고 떠날 짐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휴가의 마지막날은 못다 즐긴 휴가를 최대한으로 또 경제적으로 쓰기로 작심하고 좀 바쁜 스케줄을 잡았다. 뉴욕행 비행기 출발시간은 그

의 날째고 민첩했던 행동은 내 일생 처음이자 마지막의 일이었다.

언제나 비활동적인 아내는 내가 그렇게 설치하는 동안 짐을 다 싸놓고 있었다. 나는 젖은 머리로 대기하고 있던 공항행 택시에 몸을 던졌다. 그런 아내도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어느새 나보다 더 골프에 빠져 있다.

버뮤다섬의 휴가는 미국생활 30년 동안 몇 안되는 즐겁고 유익했던 추억이다. 여러 동문들과 함께 크루즈를 타고 가는 버뮤다섬의 여행이라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국내의 용마가족의 건투를 빈다.

(신한증권 신림지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손신임회장은 총무에 최태준동문을 지명했다.

황 철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신, 5년간 동기회를 위해 헌신한 황회장과 손정곤총무의 사의를 받아 들이고 그간의 노고를 박수로 치하했다. 특히 총회는 내년으로 다가온 홈커밍데이행사를 합심하여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결의했다.

재경25회 총회 신임회장 하성룡

제25회재경동기회는 4월 16일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대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하성룡동문(삼한까무 감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정무동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동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회 장=하성룡 ▲부회장=손찬현 손현(문서수발담당) 정철수 노태욱 최철국 허철구 황호연 ▲총 무=김경환(싸강패션).

회보 창간 30주년 축하

마산·창원지역 동창회 임원 명단

- 고 문**
안종무(6회) 화락약국 대표
목윤성(8회) 전 울림피호텔 대표
김자진(8회) 자영업
하영수(10회) 피부비뇨기과 원장
이기돈(10회) 동아화재보험 고문
안영규(12회) 부산시립병원장
이경재(13회) 동진분석연구소 대표
김영대(14회) 전 제운운수 대표
김 관(14회) 세양월드영남본부 전무
이성인(16회) 동아산병원장
- 감 사**
이 준(15회) 부산유유동문병원장
박소웅(16회) 경남방송아카데미 대표

- 회 장**
이수창(17회) 경창관광 회장
남광석유 대표
- 부 회 장**
박기일(18회·수석) 농정경영
민병위(19회) 경남대 철학과 교수
김진환(20회) 대아건설 대표
최민석(21회) 유원산업 대표
하성일(22회) 신광택시 대표
안범두(23회) LG레저 대표
이경운(24회) 하이마트 지점장
최신철(25회) 녹십자의원장
박수영(26회) 한국중공업 부장
김형태(27회) 마산삼성병원 신경정신과장

- 정영주(28회) 정안과의원장
권정국(29회) 한국중공업 차장
임명수(30회) 변호사
- 이 사**
조영국(7회) 창신중 교장
김영국(9회) 생림중 교장
김정부(11회) 경남대 부총장
노일동(13회) LG전자경부전산 대표
손한조(16회) 공인중개사
권오영(17회) 창원중앙병원장
주영덕(18회) 평화유치원 이사장
임명웅(21회) 동국감정평가법인지사장
김상대(22회) 동원정밀 마산지사장
한준석(25회) 한농상사 대표

- 홍정표(31회) 대우국민차 KD실장
김종식(32회) 한국출강 영업과장
임수호(33회) 동아산병원 경리과
조시형(34회) 쌍용자동차 총무과
김영철(35회) 하안치과원장
김상훈(36회) 현대치과원장
송경철(37회) 구명약국대표
김철민(38회) 마산결핵병원
이상훈(39회) 제일약국 대표
김병수(40회) 김명수치과원장
서백중(41회) 삼성항공 제조
안종욱(42회) 현대화재 신마산대리점
김상형(43회) 경동제약 영업소
김종필(44회) 삼성항공 구매과

- 간사장**
정승수(19회) 태원중건 대표
- 총 무**
김옥태(25회) 합양합동정공사 대표
- 회보편집장**
이상희(25회) 우리정보기술 대표
- 부 총 무**
정상국(29회·수석) 신촌특양구이 대표
이환용(32회) 마산고 교사
강창수(36회) 현대화재해상보험 창원지점장

씨애틀지역동창회

양철환(8회)=422 SW 120TH ST SEATTLE, WA 98146 (자택)206-244-8523
 최은호(9회)=2020 S. 360TH STE-201 FEDERAL WAY, WA 98003 (자택)253-925-5111
 김흥기(12회)=67175 N.E. 195THCT KENMORE, WA 98003(자택)425-398-8833
 백광호(15회)=13434 40TH AVE-NE SEATTLE, WA 98125 (자택)206-365-4128
 김영국(19회)=4805 131ST STSW MUKILTEO, WA 98275 (자택)425-745-5386
 백기완(19회)=1570 N 115TH ST #16 SEATTLE, WA 98133 (직) 206-365-4533
 최진송(21회)=6302 150TH AVES.E.BELLEVUE, WA 98006 (자택)425-957-4425
 선우 창규(21회)=4214 129TH PLSE #6 BELLEVUE, WA 98006 (자택)425-865-8983
 송태욱(21회)=16819 142ND AVESE RENTON, WA 98058 (자택)425-235-9952
 이창식(22회)=4802 HARBOURHTS DR MUKIL TEO, WA 98275 (자택)425-743-5598
 강호주(23회)=7512 220TH STSE #2 EDMONDS, WA 98026 (자택)425-775-5804
 우봉구(24회)=5579 152ND PLSE BELLEVUE, WA 98006 (자택)425-401-8849
 이석영(26회)=9425 244TH ST E -307 EDMONDS, WA 98020 (자택)206-546-3746
 오종희(27회)=4214 236TH STSW MOUNTLAKE TERRACEWA 98043 (자택)425-673-9304
 김의철(27회)=14155 SE 255THST KENT, WA 98042 (자택)253-630-9314
 박재원(27회)=3045 20TH AVEW #410 SEATTLE, WA 98199 (자택)503-861-1064 (OREGON)
 박건영(34회)=12267 NE 3RD PLBELLEVUE, WA 98005 (자택)425-450-0074

도쿄지역동창회

金光信(16회)=최근 (株)サンバック와 join, 代表取締役 専務로 就任. (사무실주소)東京都文京區小石川 1-13-12 (株)サンバック. 03-5802-3470
 梁元模(17회)=商業銀行 오오사카지점장에서 동경지점장으로 전근. (사무실주소)東京都千代田區内幸町 2-2-3 日比谷國際ビル2階. 03-3595-1881
 鄭澤滿(23회)=カウエソ証券會社 東京駐在事務所. Managggn Director. (사무실주소)東京都港區虎ノ門1-16-17(虎ノ門セクタービル 4階). 03-3503-0374. e-Mail: 110526.2626@compuserve.com
 李根培(24회)=상업은행 동경지점 부지점장 취임.
 韓承東(29회)=한겨레신문 특파원. 東京都新宿區西新宿 7-19-22 (ダイカソフテザシティ 317號). 03-3363-4815
 權根根(32회)=동경공업대학 지능시스템학과, 소림(중)연구소. 045

-924-5544. (자택)神奈川縣相模原市鹿沼台 1-10-22 神奈川國際學生會館108號. 0427-56-6369
 李相權(35회)=(株)國際商事 (사무실아전)東京都千代田區永田町 2-10-2(秀和永田町TBRビル 1011號. 03-3501-9171~2
 姜珉碩(35회)=작년말 귀국하여, (주)韓國精密 입사. 生産管理部 次長. (사무실주소) 蔚山廣域市 蔚州郡 (052)262-6980~3 (자택) (052)243-3596
 李眞昊(38회)=東京工業大學에서 博士學位 취득하고 근무지 이전으로 주소변경. 香川縣高松市林町2217-43(財)高温高压流體技術研究所. 087-869-4434. e-Mail: i-Lee@ktz.or.jp (자택)香川縣高松市木太町7區3299-1 フォレスト木太105號. 087-831-7763

제주지역동창회

김두수(12회)=경일자동차학원 원장. 99-7780. (자택)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1363-9. 99-1331
 백길오(13회)=제주도경찰청 보안과장. 35-7799. (자택)제주시 연동 세기APT 103호. 24-5359
 한광수(18회)=제주지방경찰청 검사장. 53-5131. (자택)53-2540
 최인덕(20회)=제주상패 대표. 53-4727. (자택)제주시 삼도2동 1177-2. 57-4727
 김영호(20회)=수산업. 82-9989. (자택)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1193. 011-452-7342
 김장형(25회)=제주대 공과대 정보공학과. 54-3651. (자택)제주시 아라1동 1745-1 아라미화APT 2동 501호. 56-8020
 석창재(25회)=한일농수산(주) 대표. 55-2408. (자택)북제주군 애월읍 중업 758-1 가나연립 506호. 99-7248
 박재우(26회)=제주대 공과대 에너지공학과. 54-3645. (자택)제주시 일도2동 우성APT 206동 403호. 25-1173
 곽태홍(27회)=한국병원 마취과장. 50-0275. (자택)제주시 연동 251-16 계원APT D동 502호. 44-4412
 김덕수(28회)=제주대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54-3543. (자택)제주시 아라1동 1699-4 아라천일APT 101동 406호. 58-5346
 조대제(29회)=대운수산. 64-4436. (자택)서귀포시 대림한술빌라 106동 103호. 39-3879
 김익수(30회)=(주)동성개발 전무이사. 83-2323. (자택)제주시 일도2동 47 삼주APT 103동 206호. 55-4680
 윤정수(31회)=세잔디자인전문학원장. 57-7340~1. (자택)제주시 이도1동 1359 중앙빌딩 4층. 56-7342
 정재근(31회)=난원 대표. 38-2517. (자택)서귀포시 동홍동 삼화APT 108동 501호. 63-3531
 양석환(31회)=토지개발공사 판매과장. 20-1035. (자택)42-1877
 안병환(31회)=관광전문대 야구단 감독. 011-745-6006
 임철홍(32회)=경희대학의원 원장. 51-2434. (자택)제주시 일도1동 1171-5. 46-8073
 김종욱(33회)=한국전력 남제주 화력발전소 관리과. 93-2212. (자택)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한전

APT 101동 302호. 94-9864
 이영현(33회)=명성상회 대표. 56-2296. (자택)제주시 건입동 1256. 57-7834
 양석진(33회)=한라의료원 일반의과 과장. 40-5106. (자택)제주시 연동 세기APT 나동 211호. 42-1201
 박경환(34회)=한전기공(주) 기전부 2과. 55-0628. (자택)제주시 용담1동 391. 57-5473
 최동근(35회)=토지개발공사 기획홍보과장. 20-1070. (자택)제주시 일도1동 1098 동문정환APT 408호. 24-3019
 임찬일(35회)=노동부 직업전문학교 관리부. 25-2097
 정구탁(35회)=제주세무서 소득세과. 24-1102. (자택)제주시 도남동 64 백록APT 309호. 52-9666
 김진곤(43회)=관광전문대 야구단 코치
 이기남(44회)=남제주화력발전소 발전과. 93-3317. (자택)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14. 83-7219

제8회(부산)

都根瑩=5월 17일 모친별세
 沈載斗=6월 21일 코리아나부페웨딩홀에서 차남 결혼
 우동천=5월 중순 독일에서 일시 귀국하여 산행에 참석하고 6월 29일 출국
 李玄玉=(자택)금정구 구서1동 415. 514-4059
 河一淸=민선2기 자치단체장선거에서 사천시 시장으로 당선

제8회(서울)

金榮哲=(자택이사)송파구 가락동 176 삼환APT 8동 1006호. 448-5143
 박우상=6월 7일 부산에서 모친 별세
 이영창=6월 14일 대구 궁전예식장에서 딸 결혼
 이창근=6월 7일 공항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장남 결혼

제11회(부산)

金永植=(자택이사)강서구 강동동 3499-3 14/3. 972-9651
 金守正=266-6157. (자택이사)서구 서대신동 1가 54-31. 253-2643
 廉漢鎬=부산지방병무청장. 803-3920. (자택)금정구 구서1동 265-1 한진APT 1001호. 518-0860
 卞鏞植=(자택이사)영도구 봉래동 2가 112 미광마린타워 101동 707호. 412-6229. 011-884-3579
 禹元植=(자택이사)중구 영주2동 금호타운 101동 418호. 469-4676
 金原炯=(자택이사)사상구 학장동 168 벽산APT 103동 1302호. 327-0220. 011-897-1302
 李在珍=성신종합비닐상사 대표. 645-1919. 647-1919. (자택이사)해운대구 반여1동 119-11 삼해대림타운 105동 404호. 523-3451
 金容滿=(자택이사)해운대구 중1동 1763 통일APT 103동 1402호. 746-5272
 金在煥=(자택)621-0827
 金孝珉=(자택이사)사하구 괴정2동 303-14 34/5. 203-7839
 朴奉欽=(자택이사)수영구 광안4동

1257 오양평구맨션 1동 207호. 754-3923
 李聖光=(자택이사)사하구 신평동 강변신익타운 106동 1501호. 205-0015. 011-842-7263

제12회(부산)

許泰正=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택)김해시 장유면 수거리 247. (0525)23-5168
 孔 文=유성기업 상무. 6월 30일 부친 별세
 郭三德=삼환산업사 대표. 5월 31일 테니스대회 준비와 출전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權時吉=중소기업청 과장. 6월 11일 모친 별세
 權延相=변호사. 6월 24일 차녀 결혼
 權 翼=5월 지방선거에서 북구청 구청장에 당선
 金壽萬=세화상회 대표. 6월 28일 장남 결혼
 金 勇=부산지방철도청 부산지역역장
 金準鐵=협성검정 대표. 7월 25일 장녀 결혼
 金喆基=변호사. 6월 21일 장녀 결혼
 金忠光=부산시 농정과장
 金浩洙=(자택이사)해운대구 우1동 대우마리나APT 111동 1303호
 文正秀=6월 21일 부친 별세
 朴淳浩=거제경찰서 수사과장. 5월 30일 삼남 결혼
 潘昌鎭=부산경찰청 정보과장. 6월 24일 장남 결혼
 安榮培=5월 30일 차녀 결혼
 李光庸=(자택이사)사하구 괴정1동 536-12. 206-4522
 李鍾翰=경성대 교무처장
 李春相=담배소매인조합 상무. (자택이사)장전2동 장전경보APT 101동 316호
 林元贊=6월 7일 장남 결혼
 河一民=지난 시장선거때 동문들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12회(서울)

金 國=5월 31일 창원에서 딸 결혼
 黃圭信=(주)한화창호 대표. 5월 31일 아들 결혼
 朴仁永=(자택이사)금천구 시흥2동 벽산APT 102동 1703호. 803-4726
 梁在根=(주)지성엔지니어링 대표. (032)529-7015
 李治源=삼아어선(주) 대표. 6월 7일 딸 결혼
 朴英漢=서울대 교수. 6월 13일 아들 결혼
 金基仁=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자택이사)서초구 방배동 999-2 현대빌라트 502호. 597-0593
 姜銳求=신성화학(주) 상무이사. 6월 16일 미국 보스턴에서 모친 별세
 權奉憲=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장. 536-3322
 權英述=한일리스금융 상무이사. 7월 4일 모친 별세

제13회(부산)

盧日瑢=마창지역동기회장. 경부전산 대표. (0551)67-1175
 沈鏞榮=울산지역동기회장. 세신학원 원장. (052)251-4293
 宋昌植=동진상역 대표. 441-0971. 4월 19일 문화회관에서 장남 결혼
 趙光秀=5월 9일 대구 귀빈예식장에서 장녀 결혼

具昌德=5월 23일 국제회관 4층에서 장남 결혼
 金楚三=5월 24일 아리랑관광호텔 2층에서 차남 결혼
 姜政文=6월 21일 모친 별세. 대연동 재해병원
 文正義=6월 21일 부친 별세. 영락공원묘원
 李景宰=(주)동진분석기술연구소 대표. (0551)93-5440. 6월 23일 창원 국제호텔에서 열린 ROTC 경남지구 총회에서 5대에 이어 6대 회장으로 연임. 3월부터 마산대학 환경공학과 겸임 교수로 재직. (자택)(0551)67-4848

제14회(부산)

潘泰浩=부산고등검찰청 사무국장으로서 승진(이사관). 242-9070
 鄭賢宇=부경대 경영대 교수.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 원장으로 취임. 620-6522
 金官俊=7월 23일 부친 별세
 朴秀夫=(자택이사)경남 밀양시 북면 전사포리 동암마을 318-3 대추나무집 (영양탕 전문집). (0527)356-7488
 黃浚夏=백합화원 대표. 서구 부용동 1가 62. 256-9431

제15회(서울)

具明俊=한보건설에서 유원건설(주) 회사명 환원. 대표이사. 319-2233
 金京熙=국민선물(주) 대표이사 취임. 592-5315
 金雙烈=(주)화남택 대표이사. (사무실아전)3461-8320
 金忠元=성우종합건설(주) 부사장. 525-4614. (자택)518-4779
 羅 準=롯데정보통신(주) 대표이사. 798-4600. 6월 14일 삼성의료원에서 모친 별세
 南基柱=APL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772-0801
 明浩根=쌍용그룹 구조개혁 위원장에 선임. 쌍용화재 대표이사. 724-9101
 朴光雄=과주경찰서장. (0348)943-2121
 宋再復=한화기계(주) 대표이사. 한화그룹 구조조정위원에 선임. 729-3002
 柳宇英=서울예술대 교수. 778-0261. (연구실)498-0654
 千文碩=연세대 교수겸 정보통신처장. 361-3386. (자택)790-1947
 韓秀夫=서울대 치과대 치과진료지원 실장. 760-3858

제16회(부산)

金武雄=(자택)울산시 남구 신정3동 477-3. (052)275-0679
 李相哲=한화중합화학(주) 공장장. (052)279-2101
 李善揆=SK코오포레이션 이사. (052)270-2016
 金吉井=(자택)금정구 구서2동 태평양APT 101동 1605호. 582-7153
 金鍾得=새우성공인증개사. 557-4080
 朴清永=6월 8일 별세
 徐孝造=(주)대흥전기 이사. 728-5533
 李相大=(주)범우 전무이사. (052)238-1561
 李鍾喆=부산시의회 의원 당선(남구 제2선거구). 623-3078
 鄭信克=현대산업기계(주) 공장장. (0561)773-1146~8. 6월 7일

경남중고동창회보

부친상 조문해 주신 동기생들에게 감사하다
曹吉宇=부산시의원 의원 당선(동래구 제2선거구, 3선). 555-2141
千光吉=삼락초등학교 교사. 303-3524
河浩吉=대구 (주)서부정류장. (053)656-2826
鄭 光=영남대 음악대 성악과 교수. (자택)경북 경산시 사정동 241-1 서광장원빌라 102동 201호. (053)812-0131
全道奉=해병대 사령관(해군중장). 8월 1일 장남 결혼
姜永錫=대영수출포장 대표. 5월 24일 차녀 결혼
文秀信=부산시교육위원. 4월 28일 차녀 결혼. 6월 12일 과로로 동아대 중환자실에 입원 쾌유를 바랍니다
金鍾允=남흥건설(주) 상무이사. 5월 2일 장녀 결혼
金正甲=세원부동산 대표. 5월 9일 장남 결혼
李孟五=동부화재 다전대리점 대표. 5월 17일 차녀 결혼
池秀信=태광산업(주) 상무이사. 5월 24일 장녀 결혼
孫慶植=유일스텐사 대표. 5월 24일 차녀 결혼
夫虎郎=부산시 서구 암남동 구의원 당선. 243-5077
金卿德=(자택)강서구 대저1동 3675-1 24/3. 971-4420
吳炯七=동신약국 대표. 6월 13일 장남 결혼
金光勇=부일신경외과 원장. 6월 16일 장녀 결혼
金英夫=(자택)금정구 청용동 350 경동APT 101동 1504호. 508-1421

제19회(부산)

姜良官=남일상사 전무. 322-1777~9
姜永範=(주)협성검정 이사. 463-6551~3
姜鍾仁=(자택)수영구 남천동 뉴비치APT 503동 906호. 623-2124
姜接權=배정중학교 교사. 643-9075
孔基周=공기주산부인과 원장. 504-2552
具滋玉=명인약국 대표. 501-6476
權哲賢=국회의원. (자택)622-8060
金光旭=동주여상 교사. 246-4641
金暻宇=신우세탁소 대표. 202-3219
李龍萬=동기회장. (자택)사하구 당리동 336-13 7/2. 204-7316
南泰鉉=거문도 수협 여수지점장.

(0662)666-2735. 6월 18일 교통사고로 양친 별세.
朴聖柱=(개업)조인스킨셀링 대표. 연제구 연산동 702 뉴그랜드오피스텔 1110호. 852-2151
손말현=7월 2일 모친 별세
朴相植=(주)동방 마산지사장. 경남 마산시 회원구 동암동 658-8. (0551)93-4154
姜國相=(개업)강씨인삼방 대표. 248-2222
姜道相=태화치과의원. 325-2828
金敬才=삼광선박 전무. 415-2553~5
김규화=호산기업 대표. 806-4822
金大用=중앙고속 수화물 과장. 505-3103
金明洙=제일은행 부산지점 지점장. 462-4151~5
金石九=경남경찰청 산청경찰서장
金奉鎬=동화목재 대표. 316-5111~3
金富煥=대동병원 진료원장. 554-1011~5
金成國=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510-2126

제20회(부산)

양태윤=해양수산부 부산항 항만공사과장. 643-0941
주창웅=오복식품(주) 경영자대리인. 205-8911~2

제20회(서울)

윤우성=그린테니스코트 운영. 우성하 동기와 고양시장기쟁탈 테니스 대회 장년부 금배조에 그린팀으로 출정해 우승. 6월 21일
구문기=한국수출입은행 국제금융부장. 3779-6241~2
구본홍=MBC-TV보도국 해설위원. 789-2413
김노준=조달청 부산지청 관리과. (051)342-6072, 6091
김성규=서울은행 중곡동지점장. 454-7831
김영덕=하나은행 강남역지역 기업금융센터 이사. 568-9726
김영순=(주)대우자동차 물류담당 이사. (032)520-2100
김형기=우대기술단(감리사업부)단장으로 리비아에서 8년간 근무하다가 귀국. 546-9744~5. (자택)강남구 개포동 우성8차APT 801동 408호. 573-1413
김형수=효성중공업(주) 상무이사. 707-6009
박승현=상호를 주준통상으로 변경. (사무실이전)516-4002~3
변기석=한국은행 금융시장부 부부장. 759-4454

서상희=삼성플라자 분당점 마케팅담당이사. (0342)780-8350
심원섭=(주)부민사 상무이사. 796-3747. (자택)강남구 삼성동 해청APT 12동 502호. 545-9526
유근준=한미은행본점 인사팀 소속부장. 3455-2263
유성훈=용인금융판매(주)를 설립. 대표이사. 521-6883~4
이기복=행정자치부 국내훈련과장. 3703-4710
이범추=한국마사회 안산발매소장으로 제주에서 7년간 근무하다가 상경. (0345)87-8020. (자택)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백두APT 968동 303호. (0343)95-2101
이상익=대한화섬(주) 이사. 0346-0331
이석창=(주)하나아이디 대표. (사무실이전)강남구 역삼동 642-10 성지하이츠 II 1403호.539-3421
이용린=인원물산대표. 569-8300
이사구=증권예탁부장. 3772-9250
이응천=수자원개발 기술사. 507-7270. 016-213-5555. 5월 14일 모친 별세
정국록=MBC-TV보도국 취재담당 부국장. 파리특파원 생활 3년 동안 하고 귀국. (0344)902-7304
조준섭=영림중학교 수학교사. 858-6314
천현주=한일은행 본점 신탁증권부장. 259-6250
최규재=강원산업(주) 원료담당상무이사. 732-7511
최석립=구양실업(주) 대표이사. (자택)서초구 방배3동 988-1 신동아APT 3동 1101호. 584-9221
홍삼선=한국전력공사 보령화학본부 기획관리부장. (0452)30-2110

제21회(서울)

구정모=(주)에버캡스(개업)426-6081
김영주=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자택)성북구 돈암동 616-100 한신APT 112동 1302호. 928-1232
김진홍=경기종합관리서울지사장. 485-0821
김문건=수협여행사 인수하고 대표이사. 538-9994. 여행갈때 많은 이용바람
박봉홍=재정경제부 예산총괄국장. 503-9088
박종형=뉴질랜드 이민
백남식=삼안건설기술공사 상무. (0344)918-2057
심형보=(자택)서초구 반포동 738-9. 549-7627
손양덕=방송아카데미교수. (0344)910-6000

안승원=광진세무서장. 460-3201
안영호=의성실업(주) 대표이사. 324-9711 (자택)부천시 중동 은하마을 쌍용APT 514동 1301호. (032)321-6034
장승준=(자택)과천시 부림동 주공9단지 917동 408호. 504-0405. 3월 9일 모친 별세
장종환=한국신동공업협동조합전무. 786-3341~4
정배상=한일은행/포스코센터지점장. 3453-6610. (자택)강남구 압구정동 한양APT 33동 701호. 511-6189

제25회(부산)

朴鍾雄=한나라당 사무1부 총장. (02)783-7066
林武弘=대양교역 대표. 245-1061
文在寅=변호사. 255-5511. (자택)203-7680
朴鍾贊=(주)케이이텍상사. 518-3671. (자택)555-9050
宋永根=비원레포츠 대표. 314-3362. (자택)896-6760
辛聖基=타워무역 대표. 246-2160. (자택)624-5009
吳相憲=부산대 기계공학과 교수. 510-2303. (자택)805-6137
李水榮=이수영치과의원 원장. 505-3332. (자택)552-0039
鄭允哲=제일상사 대표. 803-2751. (자택)757-7040
崔東河=진영금융 대표. (0525)23-5001. (자택)804-0689
崔炳籌=대양수산 대표. 466-1151. (자택)623-5127
崔仁德=동부제방(주) 대표. 261-8003. (자택)623-7370
韓憲敦=청남건설 대표. 292-2044. (자택)642-4494
徐秉洙=우진서비스(주) 대표. 746-5588. (자택)623-2027
金鎮喆=동서기계(주) 대표. (0523)83-7900. (자택)755-4974
崔次鎬=(자택)서구 하단동 가락타운APT 314동 401호
文光燮=대한보증보험 동래지점장. 503-0021
李爽熙=한나라당 경남 사무총장. (0551)88-2111

제25회(서울)

이종호=성균관대 생물학과 교수. (0331)290-7003
이학준=(주)효성T&C. 707-7240
손 원=C&S 합동특허법률사무소. 548-7871
김건우=(주)대우자동차. 한달동안 터키 출장중. 011-741-6276

김정학=(자택)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7동 1204호. 596-1374
김종운=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734 상록수APT 101동 204호
김충제=서울은행 명동지점. 779-2641
배중오=(회사전화 변경)3662-6109
심인보=(자택)송파구 방이동 204-9. 421-0267
윤봉한=G·F 맨파워 대표(인력용역회사)
정철수=일신화학 대표이사. (0345)492-8771
진인태=마포구 서교동 446-2
하성룡=재경동기회장. 삼환 까뮤 이사. 769-6020
김정환=싸강 패션 대표. 732-7387
김익식=(자택)394-5943
김윤겸=유공가스 하남지점장. (0347)795-2374 (자택)954-5451
우상용=LG 이천공단 부공장장. (0662)680-3660. 011-277-2374
좌상봉=삼성자동차이사. 3707-5042. 012-777-7450
노태욱=보람은행 본점 대기업 유니트팀장. 3788-5000
김정태=하나은행 본점 중소기업부부장. 754-2121(교7731)
허철구=한일은행 서초 중앙지점. 587-7637

제26회(부산)

李鍾潤=삼성화재보험 기업보험 부차장. 461-8072
金正一=삼성생명 총무팀 문화센터. 630-6420. (자택)연제구 연산9동 경남APT 2동 405호. 751-4164
襄容皓=쌍용투자증권. 246-0701
吳昇學=5월 15일 부친 별세
李承茂=부경대 사무국장. 6월 15일 부친 별세
金 炯=동남약국. 7월 3일 부친 별세
姜成雨=국제종합건설. 부친 별세
朴壯賢=대경조경대표. 부인이 남산동쪽 북한음식이란 식당 개업
金澤暎=미국 유학

제26회(서울)

이승무=교육부 정보화교육국장. 720-3307. 6월 14일 부친 별세
최상태=농림부 축산 유통사업부과장. 504-9436
최낙준=재경동기회장. 최낙준치과의원 원장. (전화변경)3482-4566. 011-719-4484.

회보 창간 30주년 축하
제30회 동기회 임원 명단
고 규 문, 하 서 규, 유 영 수, 윤 정 동, 윤 성 덕, 회 장, 최 거 훈, 수석부회장, 정 성 원, 부 회 장, 권 용 택, 김 병 기, 김 현 태, 김 배 경, 서 창 조, 손 보 덕, 송 영 현, 장 영 환, 정 영 호, 감 사, 송 한 식, 총 무, 노 치 훈, 전 화 원

자체기술로 국내 최대 장류공장 건설

蔡京錫(20회) 오복식품 진영공장 집념의 2년 결실

클로즈업

외화획득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이번에 성공시킨 기술개발로 장류의 맛과 품질을 더한층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진영공장의 새로운 발효설비는 간장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총질소 함유량을 기존 제품보다 10% 이상 향상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전통 발효 방식으로 옛 간장의 깊은 맛을 그대로 재현하며, 제조과정에서 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숙성된 메

『2년간의 끈질긴 기술개발로 압착기와 발효기 등을 완전 자동화시키고 숙원의 국산화를 달성해 장류 중주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위상을 정립했습니다.』

국내 단일 공장으로서 최대 생산량을 자신하는 장류공장을 자체기술로 완공하는 데 성공한 향토기업(주)오복식품의 사령탑 蔡京錫(20회)은 쾌거의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7월 22일부터 가동된 오복식품 진영공장(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에서 작업복차림으로 공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蔡京錫은 『자체기술에 의한 완전 자동화시스템의 개발은 외화 절약 뿐만 아니라 플랜트 수출을 통한



주에서 간장을 짜낼 때 메주가 레일 등 외부장치에 맞닿지 않게끔 증기부양식 압착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공장은 4천5백여평의 대지 면적에 연간 8만6천4백kg의 간장을 생산하는 국내 장류업계 최대 규모이다.

특히 오복식품은 전 시스템을 순수 자체기술로 구축함으로써 △기존 공장들의 일본 기술 의존과 차별화됐고 △기술을 일본에서 수입할 때 1백80억원이 들던 시설물 비용을 60억원으로 줄여 환화 환산 1백20억원의 외화를 절약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蔡京錫은 『그동안 베풀어준 동문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며 『진영공장 가동 계기로 현재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부터 공장설비 수입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머지 않아 우리나라가 장류공장 시설물의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자체 기술개발로 전국 최대 장류공장이 된 오복식품 진영공장 전경. 왼쪽은 이 회사 사장이 蔡京錫 동문.

경남고 야구팀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로

경남고(교장 金鳳吉·8회)는 9월 25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29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야구 부산대표로 선발됐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모교는 7월 3일 열린 1차 선발전에서 경남상고를 16대 5로 대파시켰고 4일 2차전에서도 7대 5로 승리, 부산대표가 됐다.

경남중 농구팀 日사수나에 2戰全勝

한편 전국 최강의 농구팀을 자랑하는 경남중(교장 金聖贊·12회)은 친선경기차 부산에 온 일본 이즈하라의 사수나중학 농구팀을 맞아 7월 23일 두차례 경기를 펼쳐 전승을 거뒀다. 모교 농구팀은 지난해 전국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사수나팀은 교장 부장 감독과 선수 17명 학부모 8명 등 모두 28명이 모교를 방문해 스포츠를 통한 유대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똥구두 행진곡



◆ 모교 청룡기교고야구 우승 축하

울산지역 동창회 임원 명단

- 고문: 정원준(3회), 김기홍(4회), 김상식(8회), 유병철(9회), 차수명(12회)
- 회장: 김익도(12회)
- 감사: 김성규(10회), 정갑윤(23회)
- 부회장: 조준탁(13회)

- 심진영(13회), 심재하(14회), 심최빙(15회), 최상삼(16회), 장철수(17회), 양동진(18회), 이만호(19회), 전종실(20회), 박일송(21회)
- 사무국장: 박홍조(22회)
- 수석총무: 최태열(28회)

- 총무: 김광경(33회)
- 이사(동기회장): 김상희(4회), 심재홍(11회), 이재인(12회), 심진영(13회), 장원주(14회), 최빙(15회), 최상삼(16회), 오양한(17회), 양동진(18회), 이만호(19회), 전종실(20회)

- 최철수(21회), 박홍조(22회), 이문희(23회), 홍용기(24회), 김동진(25회), 이정국(26회), 윤문태(27회), 최성덕(28회), 왕도성(29회), 박원호(30회), 박춘렬(31회), 김상명(32회), 김광경(33회), 이동인(34회), 김인수(35회)

- 박철종(36회), 이승렬(37회), 김기현(38회), 강동원(39회), 신상용(40회)
- 현대회장: 서상무(20회)
- 현대총무: 최원수(30회)
- 화학공단총무: 전원경(28회)